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박효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Sault Saint Marie (온타리오주)
파견대학	Algoma University	기간	2017. 7. 9(일) ~ 7. 30(일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알고마 대학은 온타리오주에 있습니다. 작은 학교이며 깨끗하고 좋습니다. 수업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따뜻하십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저희는 수업을 분반하였습니다. 콜롬비아, 타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.</p> <p>저는 advance반이었어요. 쓰기 수업은 어려웠어요. 하지만 제일 쓸모 있는 수업이었습니다. 주로 일상적인 쓰기보다는 공식적인 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문법 수업은 선생님 자체도 에너지 넘치셔서 지루하지 않았어요. 읽기는 3~4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수업이 매우 적었습니다.</p> <p>저희 받은 과제가 매우 적었습니다. 주로 쓰기 수업이었고 간단한 거여서 시간도 얼마 들지 않았어요. 노트북도 필요 없었습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</p> <p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1주에는 컬러런을 했습니다. 따로 준비물은 없었어요. 굳이 말하자면 딥클렌징폼과 버려도 되는 가방 정도? 가루지만 정말 안 지워져요.</p> <p>2주에는 무슨 암벽에 그려진 그림? 보고 호수에 갔습니다. 저희가 간 날에 비가 와서 아쉬웠어요. 그림은 그렇구나~ 이 정도고, 호수에서는 비가 와서 제대로 못 놀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. 수영복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!</p> <p>3주에는 초밥 집에 갔습니다. 맛있었고 추가 비용은 없었어요!</p> <p>일요일은 free day여서 주로 가족들과 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. 하지만 저는 홈스테이 엄마께서 일을 나가셔서 1주에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. 2주에는 다른 홈스테이 집에 들러 캠프파이어를 하였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종종 비가 왔습니다. 우산과 겹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현지 분들 매우 친절하십니다. 저희가 갔을 때는 백야여서 밤9시가 되어도 밝았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v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홈스테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. 저는 이민 오신 한국 분이어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.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따로 규칙은 없었고 욕실사용에 있어 물기 제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.</p> <p>*제가 있는 동안 영어를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영어로 대화했습니다!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v) 외부식당 (v)기타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점심은 도시락을 싸 주셨고, 아침과 저녁은 주로 홈스테이 엄마와 먹었습니다. 약속이 있는 날에는 나가서 먹기도 했고 자율적이었습니다!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저는 학교에서 약 35분 정도 걸렸습니다. 혼자 통학했고 학교까지 총 2번의 버스를 타야했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,830,300	출국 전 사전 납부
여행자보험	31,779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선물	450,000	가족,친구들 선물
미국	40,000	
합계	2,300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.

비가 오는 날에는 쌀쌀했습니다. 추위를 많이 느끼신다면 두꺼운 옷 한 벌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교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추워요....

집에 돌아올 때 정류장을 잘못 내려 길을 잃어버렸었어요. 하지만 버스기사님과 현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귀가했습니다.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무조건 물어보세요!

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도 적게 들어 환전을 많이 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. 가서 쓰는 비용이 많지 않으니 즐길 정도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. 그 곳이 수세인마리여서 좋았습니다!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친절한 현지인들 덕분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게 되었어요.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곳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. 홈스테이 엄마께서도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다른 홈스테이 분들도 정말 착하셨습니다. 저는 주로 개인 시간에 주변을 둘러보거나 다른 집에 방문했습니다. 캠핑가시는 분들도 있으니 슬쩍 껴서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! 이 곳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영어 공부 좀 만 더하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었어요.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대로 전달 할 수가 없어서 많이 후회했었습니다... 덕분에 향후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도 생겼어요! 여러 모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학교	컬러 런



미국



캠프파이어



봉사활동 가는 길



주변 공원